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김경하[†]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2년 6월 10일 접수: 2022년 6월 24일 수정: 2022년 6월 26일 채택)

The Effects of Growth Mindset and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young-Ha Kim[†]

Department of Nursing, Songwon University
(Received June 10, 2022; Revised June 24, 2022; Accepted June 26, 2022)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시의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이며 자료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수집하였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 수, 통제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장마인드셋은 간호전문직관($\beta=.325$,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간호전문직관($\beta=-.099$, $p=.161$)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모형은 간호전문직관을 25.4%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장마인드셋을 강화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성장 마인드셋,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Abstract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s of growth mindset and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are 3rd and 4th grade students who are attending two university nursing departments in city G,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to September 2021.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Growth mindset($\beta=.325$, $p<.001$) had a positive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beta=-.099$, $p=.161$) had not statistically a significant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study model accounted for 25.4% of nursing

[†]Corresponding author
(E-mail: gh6081@hanmail.net)

* This study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Songwon University in 2021(2021-44).

professionalism. It suggests that strategies are needed to enhance the growth mindset in order to promote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s, Growth mindset, Emotional labor,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alis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견해, 관념, 신념 및 가치관 등의 총합체로, 체계적인 간호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되며,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추후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간호전문직관의 바탕이 되므로 간호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2]. 간호전문직관이 뚜렷하게 확립된 신규간호사의 경우 자신의 직무에 대한 몰입이 높고 이직 의도가 낮으며[3], 간호전문직관이 잘 확립되지 않으면 직업 활동에 대한 이념과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2]. 병원간호사회의 2021년 조사에 의하면 1년 이내에 47.7%의 신규간호사가 병원을 그만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 이는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직업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갖고 자신의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인드셋은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에 대한 관점으로, 성장마인드셋은 자신의 노력과 연습을 통해 능력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고정마인드셋은 개인의 능력은 선천적인 것으로 노력과 연습을 통해 변화될 수 없다는 믿음을 의미한다[5].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사람일수록 노력과 연습을 통해 높은 성취 수준을 보이고[6], 고정마인드셋이 높은 사람은 실패나 실수를 내면화하여 성취 수준이 낮고 쉽게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성장마인드셋은 학습자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중 하나로[8],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마인드셋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 간호전문직관이 이론과 실습이 이루어지는 간호교육을 통해 대학생 시기 동안 형성되는 것[2]을

고려할 때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학생일수록 간호전문직관 관련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긍정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으므로 성장마인드셋을 간호전문직관의 예측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현재 성장마인드셋에 대해 일반대학생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간호대학생 대상으로는 성장마인드셋과 자기주도학습의 인과관계를 다룬 한 편[10]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 정도를 확인하고 성장마인드셋이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간호학과에 입학한 간호대학생은 이론교육과 더불어 실습교육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고, 실습교육 중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의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실제 간호현장에서 익히게 된다[11]. 감정노동은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인위적으로 표현하는 것[12]인데,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예비간호사로서 요구되는 표현규범에 부합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는 다른 인위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다[13,14].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떨어지고[15],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아지며[16],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낮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심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7].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관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에서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높은 학생은 간호전문직관이 낮은 것[16,17]으로 확인되었지만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간호전문직관을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들은 교육과정의 특성 상 3, 4학년 동안 임상실습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이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마인드셋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간호교육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으로 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회귀분석의 적정 표본크기 산정을 위해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는 .15, 검정력은 .95, 유의수준은 .05, 예측변인은 9개로 산출한 결과 166개로 확인되어 탈락율과 회수율을 고려한 190명을 설문 대상자로 하였다. 응답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을 보인 7부를 제외한 후 183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대학과 학과의 절차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받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에 응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성장마인드셋

성장마인드셋 측정도구는 Dweck [5]이 개발한 마인드셋 측정도구를 Park [18]이 변안한 것으로 총 8문항의 마인드셋 측정도구 중 성장마인드셋 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마인드셋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6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58였다.

2.2.2. 임상실습 감정노동

감정노동을 측정도구는 Morris와 Feldman [19]의 연구를 토대로 Kim [20]이 변안한 도구를 임상실습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당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감정노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98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41였다.

2.2.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Yoon 등[1]이 개발하고 Han 등[21]이 수정한 도구를 Kang [22]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64였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장마인드셋,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간호전문직관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통제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정도

본 연구에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장마인드셋의 평균은 4.08점(SD=.64), 임상실습 감정노동의 평균은 3.08점(SD=.56), 간호전문직관의 평균은 3.85점(SD=.48)으로 확인되었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전공만족도로 Table 2와 같이

확인되었다. 사후 검정(Scheffé test) 결과,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대상자가 보통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조사되었으나 만족, 보통, 불만족의 순으로 간호전문직관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3.3.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 Table 3과 같다. 성장마인드셋과 임상실습 감정노동($r=-.097, p=.192$)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성장마인드셋과 간호전문직관($r=.377, p<.001$)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관($r=-.149, p=.044$)은 부정상관을 보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183)

Variables	M±SD
Growth mindset	4.08±.64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3.08±.56
Nursing professionalism	3.85±.48

Table 2. Degree of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3)

Characteristics	Range	n(%)	Nursing professionalism	
			Mean±SD	t / F (p) Scheffé
Age	≤ 23	126(68.9)	3.82±.48	-1.221 (.224)
	≥ 24	57(31.1)	3.91±.48	
Sex	Female	153(83.6)	3.82±.47	-1.635 (.104)
	Male	30(16.4)	3.98±.49	
Grade	3rd	95(51.9)	3.86±.49	.291 (.771)
	4th	88(48.1)	3.84±.48	
Motive for applying	Aptitude, Interest	60(31.8)	3.89±.44	.436 (.647)
	Stable Job	90(49.2)	3.83±.53	
	Another's advice	33(18.0)	3.81±.40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a	58(31.7)	4.03±.42	6.477 (.002) ^{a>b}
	Moderate ^b	110(60.1)	3.77±.49	
	Dissatisfaction ^c	15(8.2)	3.72±.44	
Economic state	High	14(7.7)	2.61±.52	1.042 (.355)
	Medium	149(81.4)	2.57±.49	
	Low	20(10.9)	2.60±.48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183)

Variables	1 r(p)	2 r(p)	3 r(p)
Growth mindset	1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097 (.192)	1	
Nursing professionalism	.377 ($<.001$)	-.149 (.044)	1

1. Growth mindset, 2.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3. Nursing professionalism

Table 4. Influence of Variabl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N=183)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175	.290		10.929	$<.001$
Major satisfaction(moderate)	-.147	.076	-.149	-1.923	.056
Majo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110	.137	-.062	-.801	.424
Growth mindset	.244	.054	.325	4.495	$<.001$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072	.051	-.099	-1.409	.161
Ad. $R^2 = .254$ F(p)= 9.263($<.001$) Durbin-Watson=2.122					

3.4.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성장마인드셋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종속변수인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간호전문직관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인 전공만족도를 더미변수 처리하여 통제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는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종속변수는 자기 상관이 없어야 한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가장 낮은 값이 .769로 모두 .10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가장 큰 값이 1.286으로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 독립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의 문제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 Durbin Watson 지수가 2.122(1.862 < d < 2.138)로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회귀모형은 F=9.263(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

하였고,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254로 독립변인들이 간호전문직관을 25.4% 설명하였다.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은 Table 4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성장마인드셋($\beta=.325$, $p<.001$)은 간호전문직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감정노동($\beta=-.099$, $p=.161$)은 간호전문직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예측요인은 성장마인드셋으로 확인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촉진하는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평균은 5점 만점에 4.08점으로 Lee와 Kim [10]의 3.24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본 연구는 3, 4학년생을 대

상으로 하였고 Lee와 Kim [10]은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직접적인 비교 고찰에 제한이 따른다. 간호대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 [10]의 3.24점은 일반대학생의 Seo와 Kim [9]의 3.96점과 Han [23]의 4.13점보다 낮아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성장마인드셋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Lee와 Kim [10]의 연구결과 한편에 의존한 것이므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 수준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평균은 5점 만점에 3.08점으로 Oh 등[24]의 3.80점보다는 낮았고 Kim [17]의 3.03점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Kim [17]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인지하는 감정노동은 실습part(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와 실습기관의 조직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평균은 4점 만점에 3.85점으로 동일 학년 및 대상의 연구인 Kim [17]의 3.82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Lee와 Jang [25]의 3.2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26] 연구대상자들이 임하는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대상 및 도구를 이용한 Lee와 Jang [2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를 일반적 특성으로 다루었지만,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간호전문직관과의 인과성을 규명한 연구[27]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성장마인드셋,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에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장마인드셋 수준이 높은 학생이 간호전문직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이 두 변수 간 상관성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 고찰에 제한적이며,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높은 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이 낮다는 결과는 Yeom [16]과 Kim [1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

이 자신의 능력이 앞으로 노력과 연습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높으면 간호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도 높아 간호전문직관이 잘 형성되고, 임상실습을 하면서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 규범을 잘 받아들이고 감정노동에 잘 대처하는 학생이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성장마인드셋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장마인드셋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장마인드셋과 간호전문직관의 인과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결과에 대한 비교 고찰에 한계가 따른다. 또한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두 변인 간 인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 고찰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장마인드셋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전략은 본 연구결과 한편에 의한 것이므로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성장마인드셋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봄으로써 성장마인드셋이 간호전문직관의 예측변인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촉진을 위해서는 성장마인드셋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성장마인드셋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성장마인드셋을 다른 변수의 예측변수로 설정한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성장마인드셋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성장마인드셋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실증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은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성으로 간호학과에 입학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전문직관 관련 교과목 학습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매우 긍정적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촉진을 위해 성장마인드셋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수행한 최초의 연구였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본 연구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연구결과에 일반화에 제한이 따르

므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마인드셋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한다. 셋째, 성장마인드셋 증진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2005).
2.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3, No.3, pp. 285-292, (2007).
3. H. Y. Jenung, S. Y. Kim,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Involvement on Turnover Intention among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5, pp.531-539, (2016).
4. Hospital Nurses Association.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2021). Available From: <https://khna.or.kr/home/pds/utilities.php>. (accessed June., 8, 2022)
5. C. S. Dweck,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pp. 288, Random House, (2006).
6. C. Good, J. Aronson, M. Inzlicht, "Improving adolescents' standardized test performance: An intervention to reduce the effects of stereotype threa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4, No.6, pp.645-662, (2003).
7. L. S. Blackwell, K. H. Trzesniewski, C. S. Dweck,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predict achievement across an adolescent transition: A longitudinal study and an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Vol.78, No.1, pp.246-263, (2007).
8. C. Fadel, M. Bialik, B. Trilling, Four-dimensional education: The Competencies Learners Need to Succeed, pp. 177,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2015).
9. E. H. Seo, E. Y. Kim,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failure toler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academic engagement of college student",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1, No.2, pp.5-26, (2020).
10. S. Y. Lee, J. Y. Kim, "Growth Mindset,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Onlin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8, No.2, pp.567-578, (2021).
11. J. J. Yang,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9, No.1, pp.64-72, (2003).
12. A. A. Grandey, "Emotion regulation in the workplace: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55, No.1, pp. 95-110. (2000).
13. E. Y. Yeom, "Awareness of Emotional Lab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5, pp.177-189, (2017).
14. S. Y. Kang,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on burnout during nursing practice in a hospital: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1, pp.77-87, (2015).
15. E. M. Park, Y. S. Song, "Predictors of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5, No.3, pp.357-365, (2019).
16. E. Y. Yeom,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4, pp. 320–330, (2017).
17. K. H. Kim,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2, pp.116–123, (2022).
 18. J. S. Park, *The Effects of Attributional Feedback o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indset, Grit and Self-Control*,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19. J. A. Morris, D. C. Feldman,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1, No.4, pp. 986–1010, (1996).
 20. M. J. Kim, “Research Articles : Effects of the Hotel Employee's Emotional Labor upon the Job-related Attitud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21, No.2, pp.129–141, (1998).
 21. S. S. Han, M. H. Kim, E. K. Yung,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 73–79, (2008).
 22. H. S. Kang, *Path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7).
 23. C. W. Han, “Structural Rel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Growth Mindset, Future Time Perspective, Grit, and Academic Engagement”,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34, No.2. pp. 99–122, (2021).
 24. J. W. Oh, B. Y. Huh, M. R. Kim, “The Effects of Nurses' Work Environment,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n Nursing Students Perceived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10, No.4, pp. 59–74, (2019).
 25. A. R. Lee, H. J. Jang,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6, pp. 2427–2442, (2020).
 26. C. H. Kim, J. Y. Kim,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5–16, (2019).
 27. K. E. Lee, I. S. Seo,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1, pp.37–47, (2022).